



가천길재단
Gachon Gil Foundation

가천대학교

하와이캠퍼스

AI학과 / 배터리학과

창업대학 '코코네스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가천대 길병원

국가지정 지역암센터평가 종합 1위

최상의 심뇌혈관센터

세계 뇌과학 연구 선도(11.74T MRI 개발)

꿈의 중성자 암치료기(임상시작)



국내 최초 길병원 닥터헬기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4 Vol. 155

가을

茶文化



차는 시작(詩作)의 처음이자 끝이었다



석천 임억령(林億齡 1546~1568)

석천(石川) 임억령(林億齡 1546~1568)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해남군 동문 관동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석천으로 자신이 태어난 마을의 개울 이름을 호로 삼았다. 석천은 호남 시학의 원조 놀재 박상 문하에서 수학했다.

의리와 명분을 중시한 도학자 놀재의 학문적 소신은 석천의 강직하고 곧은 성품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선 중기 문인으로 평생 시를 살다간 석천은 자연을 소재로 많은 시를 남겼다.

수많은 시 중에서 차시로는 들에서 차를 마시며(野酌), 시냇가 정자(溪亭), 기미년 가을 추성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와(己未秋 自秋城歸家) 등이 있다.

그의 시에는 전형적인 자연 친화적인 풍경이 그려져 있다. 욕심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일상의 소중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석천시집 권 3권에 실려 있는 ‘들에서 차를 마시며’를 감상해 보자.

산에서 꽃에 앉아 꽃을 미인으로 삼고 / 들에선 풀에 앉아 풀을 담요로 삼네.
글썽기 머니 서늘한 바람 들어오고 / 구름 사라지니 따뜻한 해 아름답네.
숲속의 새소리엔 시로 답하고 / 어린 중을 시켜 차를 달이네.
악기 소리 없다고 말하지 말게나. / 바람의 거문고가 태고의 음악을 들려주네.

화자는 산에 올라가 자연을 풍경 삼아 시를 짓고 있다. 시어(詩語)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일상적인 언어로 자연 모습을 그대로 그려 놓은 듯하다. 자연과 화자가 하나가 된 모습에서 삶을 관조한 여유로움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가장 자연스러운 풍경과 가장 자연스러운 시어가 어우러져 일상 풍경을 노래한 시인의 정신 세계가 아름답기만 하다. ☯

[표지 이야기]

여름 위세가 당당해도 가을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는 무섭도록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갔다면 내려올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을 차 한잔하면서 삶을 의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사)규방다례보존회 소식지

발행·편집인 최소연 | 편집장 고만송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사)규방다례보존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 F. 02) 719-78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10호

T. 032)468-3595 | F. 032)461-2350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 http://gyubangdarye.co.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gyubangdarye@naver.com

茶文化

2024 Vol. 155 가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 006 특집 1 제63회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 수료식
- 024 특집 2 인성예절지도사 자격검증 실시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0 대학원 소식 |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에 임한 대학원생들
- 036 건강한 삶 | 차매
- 039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52 규방다례 소식 | UN 공공행정 포럼 문화행사 참여 외
- 056 협회 소식 | 명예이사장 이장 외

茶情茶感 • 찾았이 맺어준 인연

- 063 지부사랑방
강원지부 / 경기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 나주시부
대구경북제1지부 / 동수원지부 / 보성지부 / 부산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수원지부 / 순천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전북지부 / 충남지부 / 충북지부
- 093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취득자
- 094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095 우송료 명단
- 097 광고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무더위가 언제였느냐는 듯이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들녘엔 어느새 황금물결이 펼쳐지고, 가을 언덕엔 탐스러운 과일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신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인 여러분! 우리 협회는 5월에 전국 차인큰잔치와 차음식경연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8월에 개최되었던 제63회 하계연수회와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 있을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임원 연수, 무형유산 규방다례 전승 공연, 해외 차문화 기행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요즘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가족 소멸이라는 ‘소멸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243곳 중 118곳이 지역 소멸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인구 소멸도 심각하고,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35.5%를 차지할 정도로 가족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중요한 행사인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와 인설차문화전에 유치부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론 속에서 우리 차문화도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박한 찻상 앞에 앉아 차 한잔을 하는 이 즐거움이 언제 사라질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조선 후기 문인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加也勿 減也勿 但願長似嘉俳日)’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차인은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서서는 어른 100명에게 차문화를 가르치는 것보다 어린이 1명에게 차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이 1명은 성인이 되어 차인 100명, 1000명 이상을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와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 차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소멸을 말하는 것은 그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속절없는 회한(悔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모든 존엄한 것들을 지키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마로 인한 홍수 범람으로 모든 것을 쓸어간 자리엔 옥토가 생겨나고, 강렬한 햇빛으로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 간 자리엔 알찬 곡식과 탐스러운 과일이 매달려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소멸한 곳에 새로운 창조가 피어나도록 하는 것이 차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제63회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 수료식 성료

일본 교토지부 포함 회원 350여 명 참석

협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호텔 푸르미르에서 임원과 회원, 내외 귀빈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수료식을 개최하였다. 하계연수회 동안 특강으로 정민 한양대 교수의 '다신(茶神)'의 정체와 김윤영 가천대 교수의 '유방암 검진 및 유방암의 치료'가 1일 차에 진행되었고, 2일 특강에는 온형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한국 정원문화와 차문화의 심미 의식'과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2024.08.17



최소연 이사장 개회사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정각. 경기도 화성 호텔 푸르미르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국차문화협회 제63회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이 개최되었다. 민달래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하계연수회 및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은 국민의례,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최소연 이사장의 개회사, 협회가 제창, 특강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하계연수회에는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 등 전국에 있는 한국차문화협회 임원, 지부장, 이사, 전문사범, 준사범, 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일본 교토지부는 행사 하루 전 조화미 지부장 이하 회원이 입국하였고, 각 지부에서는 아침 일찍 출발하여 개회식 전에 호텔에 속속 도착했다. 미리 온 회원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임원 찾자리와 회원 찾자리는 2023년도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순천지부 김영애 지부장과 회원들이 봉사해 주었다. 순천지부는 연수회 시작 전에 도착하여 찾자리를 꾸몄고, 일찍 도착한 회원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개회식에서 최소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귀례 명예



강정자 부회장 지휘



이사장님은 차를 마셔야 하는 이유를 “차가 우리 몸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산림녹화와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인들은 차를 음용함으로써 자연보호와 산림경제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차문화를 글로벌 문화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우리 협회의 크나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차 교육 단체로서 한국 차문화의 산실이라는 자긍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3세대 차인을 이끌어 갈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전과 활기로 우리 협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임원 및 회원 여러분! 차를 배우겠다는 회원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차를 배우고 싶어 하는 회원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극복하여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개회사를 마쳤다.



2024.08.17

정민 한양대 교수의 '다신(茶神)'의 정체



2024.08.17

정민 한양대 교수는 차를 끓이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그 인품과 차품이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서 그 방법은 매번 고상한 부류와 은일의 인사로서 안개와 노을, 시내와 돌무더기가 가슴 사이에 가득 쌓여있는 사람에게 전해져 왔다.라고 말했다.

정민 교수는 특강에서 다도를 인품과 차품이 어우러진 만남으로 설명했다. 물을 끓여 차를 넣고 우려 마시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는 깊은 이치가 담겨있다. 고상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슴 속에 자연의 기운을 품은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전해온 도리가 있으니 그것이 다도다.

정민 교수는 『다신전(茶神傳)』을 중심으로 '다신(茶神)'의 정체를 살펴 초의의 다도론으로 연결하는 경로를 찾아보려고 했다. 『다신전』은 초의가 『만보전서(萬寶全書)』에 실린 『다경채요(茶經採要)』 부분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초의는 필사를 마치고 책으로 묶으면서 제목을 '다신전'으로 바꿔 달았다. 다신전이라 할 때 우리는 다신(茶神)의 전기, 즉 다신의 출생과 가계, 출세 및 벼슬

길, 성품과 처세, 가족관계 및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은 내용을 기대하게 된다.

여러 다서(茶書)에서 다도의 요점이 될만한 내용을 담은 『다경채요』를 베껴 쓰고 나서, 초의가 한 사람의 일생을 설명한 듯한 내용으로 표제로 바꾼 것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 또 이렇게 인격화된 '다신(茶神)'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라며, 특강을 이어갔다.

정민 교수는 다도의 핵심은 중정(中正)에 있다. 중정은 건령(健靈)의 결과를 낳는다. 중은 적절함이고 정은 바름이다. 알맞게 바른 방법을 써야지, 편법으로 변통하면 안 된다.

채다는 채엽 시기를 1년 중 극우 전 5일과 자춧빛 짙, 밤새 구름 없이 이슬에 젖은 잎을 골짜기 가운데서 채취해야 최고가 된다. 조건이 까다롭다. 조다는 노구술을 아주 뜨겁게 해서 센 불로 익혀 채로 거둬 몇 번 비비는 것을 반복한다. 이후 불을 줄여 건조한다. 불기운은 일정해야 하니, 이것을



2024.08.17



가천대 길병원
김윤영 교수의
‘유방암 검진
및 유방암 치료’



놓치면 다신과 차향이 흩어진다. 변다에서는 불기운과 술, 땀, 시간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 중정을 지켜야지,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잃으면 앞선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다. 애써 만든 차를 제대로 보 관하려면 건조 상태로 향아리와 대접질로 싸서 보 관해야지 다른 방식을 쓰면 역시 건령을 잃고 만다. 화후도 불기운이 중을 놓치면 안 되고, 탕변 또한 형태와 소리와 김이 보여주는 중정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어야 순숙의 진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단차에는 어린 물을, 산차에는 순숙의 물을 쓰는 적용이 필요하니, 이것은 정(正)과 관계된다. 포법은 물속에 차가 머무는 시간과 따르는 시간, 그리고 물과 차의 양을 조절하는 중정을 요구한다.

다도는 찻잎 채취로 시작해서 다신을 머금어 내리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이중 어느 한 단계만 건너쳐도 앞선 모든 과정과 절차가 연쇄적으로 붕괴한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남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폐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끝까지 다신을 잘 지키고 차향을 잘 간직해 그 건령의 기운을 내 몸 안에 깃들일 때까지 정성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이 다들 리 없다. 이렇게 해서 차의 도리는 마침내 인간의 도리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다도를 수행하는 우리는 삶의 수행길에 나선 구도자이기도 하다.라며 강의를 마쳤다.

특강 2에서는 가천대 길병원 김윤영 교수의 ‘유방암 검진 및 유방암 치료’란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여성에게 민감한 유방암 검진과 유방암에 대한 치료로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윤영 교수는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자 수로 2000년 6,237명이던 유방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12,115명이 발생하면서 2배에 이르렀다. 2019년에는 환자 수 29,749명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해 연간 유방암 발생자 수가 3만 명





온형근 교수의 '한국 정원문화와 차문화의 심미 의식'

에 육박했다. 유방암 발생 증가 원인으로는 고지방, 고칼로리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비만, 늦은 결혼과 출산을 저하, 수유 감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암검진사업 활성화로 유방 검진에 의한 암발견 빈도 상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유방암의 위험인자로는 에스트로젠 노출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른 초경, 늦은 폐경,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 30세 이후 출산, 모유 수유하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만, 흡연, 음주, 호르몬대체요법이나 경구피임약, 유전자(BRCA1, BRCA2)의 변이, 유방암 가족력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인자로는 모유 수유, 운동, 적절한 체중 유지, 야채와 과일 섭취를 꾸준히 하는 것이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수칙으로는 건강한 식이 및 육체 활동을 해야 한다. 더불어 생활 속에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 활동과 함께 균형 잡힌 칼로리 섭취, 과도한 체중 증가를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 이외에 일주일에 5회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45분에서 한 시간가량의 신체 운동이 바람직하다. 소아나 청소년은 일주일에 적어도 5일, 하루 한 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다.

특강 3에서는 온형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한국 정원 문화와 차문화의 심미 의식'이 있었다. 온형근 교수는 조선에는 별도로 원야(園冶)나 작정기(作庭記)와 같은 정원기법서가 없었지만 이런 종류의 시문을 보면 정원 축조의 기법과 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시문을 위해 경관을 조성하고, 시문을 통해 감상 되며, 시문을 통해 그 기법이 전수되는 독창적인 조경 양식을 곧 시경(詩景)이라 칭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정원에 있어 일종의 규범이 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온형근 교수는 풍경과 이미지로 떠오르는 그 정경이 바로 시경(詩境)이라 하였다. 시경이란 유사성에 의지한 경계로 사물의 내면 깊은 곳에 도달하는 풍경의 미학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생생한 풍경으로 내밀하게 채굴되는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생생한 개념만으로 시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대상에 가장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실제의 구체적 형상으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를 말한다.

시의 절제와 여백으로 채워 내는 풍광인 '시경(詩境)'이 정원조성의 기법과 만나 공간 구성의 키워드 문장이 된다. 시경은 한국정원문화의 일 순위 조영 원리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정원 양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전통 조경의 문화경관으로 자리한다.

한국정원문화는 시의 풍경인 시경(詩景)과 시의 경지인 시경(詩境)을 품고 풍광으로 산출되어 조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 교수는 풍류와 차문화, 해학과 차문화, 신명과 차문화, 자연과 차문화, 소박과 차문화, 평온과 차문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혔다.

1박 2일간 다담 시간을 비롯하여 지부별 찾자리가 마련되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각 지부장은 17일 찾자리를 통해 차문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협회 발전과 한국 차



문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연수회 다담 시간을 가졌다.

각 지부에서는 대표 음식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모인 음식으로 산해진미를 방불케 했다. 이번 하계연수회에는 가천대학교에서 차문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10여 명도 함께 참석하여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연수회가 되었다.

2일 차 특강 3을 마친 후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증 수여와 인성예절지도사 3급과 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 앞서 전북지부 명철 회원이 회원들을 대표하여 자격 취득자 전체 선서를 하였다. 수료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준사범, 지도사범, 개근상, 화목상,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순으로 진행되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이번 하계연수회는 다양한 회원이 참여하였고, 알찬 특강과 풍성한 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내년 동계연수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 🌸

※ 참고: 자세한 특강 내용은 제63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하계연수회 교재를 참고하기를 바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자격증 수료식에는 준사범(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과 지도사범(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을 비롯하여 개근상, 화목상이 주어졌다.



선서-명철(전북지부)

2024.08.18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2024.08.18



2024.08.18



문치남 이사-규방다례 이수자증



준사범



지도사범



화목상



지부장 격려금 지급



한국차문화협회 각 지부

제63회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수료식 및 하계연수회가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한 전국 지부가 참석하여 큰 성황을 이뤘다. 참가한 지부별 사진을 소개한다.

2024.08.18



강원지부



경남지부



광주지부



동수원지부



교토지부



서울제1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서울제2지부



순천지부



전북지부



인천지부



충북지부



전남지부



가천대학교 학생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필기 및 실기 심의

지난 7월 13일 협회 교육장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과 3급 자격 심의가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필기시험을 보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실기 심의를 했다. 생활다례 심의위원은 차영민 부회장, 강정자 부회장이 맡았고, 규방다례 심의는 최소연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와 박광옥 전수장학사가 했다.



2024.07.13



2024.07.13

협회 3층 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실시한 필기 시험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전국에서 올라온 심의 대상자들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문제 없이 풀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당황한 모습이 엿보였다. 긴장감 속에서 치러진 필기시험 자격 심의 대상자들은 오랜만에 맞보는 긴장감이었다고 했다.

한 시간 동안 치러진 필기시험을 마친 심의대상자들은 시험으로 인한 긴장도 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로 올라오는 바람에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해 바로 식사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그동안 지부장 지도로 연습한 회원들은 막상 실기시험이라고 생각하니 긴장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2024.07.13

실기시험에 앞서 간단한 최소연 이사장님의 인사말이 있었다.

“반갑습니다. 새벽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분들이 진정한 차인입니다. 차인의 길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방식으로 마음껏 기량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여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심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중 틀리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지적받았다고 너무 마음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심의를



2024.07.13



2024.07.13

받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최소연 이사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심의위원 소개를 시작한 다음 바로 실기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에 실기 시험자는 3급에 김선아, 문영희, 박제화, 김태훈이 응시했다. 2급에는 유대영, 명철, 윤성진, 박은숙, 노을, 김세란, 천미경, 강가람, 유연경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3급과 2급 응시자 중에는 전북지부에서 남자 3명이 응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림 전북지부장의 지도로 시험에 응시한 남성 3인은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로 심의장을 밝고 환하게 만들었다.

이번 심의에는 심의위원 이외에 이림 전북지부장, 황미경 경남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 강희옥 감사, 이금숙 이사, 최성미 전수장학생, 변명선 이사, 최정희 이사 등이 지원해 주었다.

심의가 끝난 후에는 참석한 회원 등과 함께 해외 차문화기행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으며, 차영민 부회장이 심의에 도움을 준 회원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



2024.07.13

자격심의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의 열정이 차문화를 발전시킨다

회원들을 인솔한 지부장께 감사

새벽부터 각 지부에서 올라온 인성차예절지도사 자격 수험생과 각 지부장.
이번 인성차예절지도사 자격시험은 2급과 3급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지부에
서 열심히 배운대로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해 자격심의에 임했다.



강원지부



경남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에 임한 대학원생

규방다례는 다섯 가지 정신으로 만들어진 다례법

협회는 지난 6월 29일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차문화대학원 수업을 진행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인 최소연 협회 이사장의 주관 아래 제22기 차문화대학원 실기수업을 진행했다. 최소연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를 비롯하여 이막동, 최지원 회원이 이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다례와 규방다례 수업을 했다. 최소연 보유자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손수 시범을 보여줘, 차문화대학원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오전 11시 배례법을 시작으로 진행된 수업에는 전수장학생 최성미, 이기분 서울제1지부장과 규방다례 이수자 이막동, 최지원 회원이 최소연 보유자와 함께 대학원생들에게 배례법과 생활다례에 대한 실기 교육을 했다.

오전 수업은 배례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배례법은 예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예로 시작에서 예로 시작된다”라고 하며 배례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전수장학생 최성미 회원의 시범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은 1대 1로 집중 지도 방법으로 진행됐다.

각 지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은 최소연 보유자로부터 한 사람씩 일일이 지도를 받았다. 손동작, 발동작은 물론이고 옷고름 매는 법과 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론과 실기를 겸해 지도를 받았다. 한 사람씩 모든 회원이 보는 앞에서 연습하다 보니 틀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틀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업받는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다.

오전 수업을 마친 제22기 대학원생들은 모처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우애를 다졌다. 차문화대학원은 수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차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우애를 다지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지역의 차문화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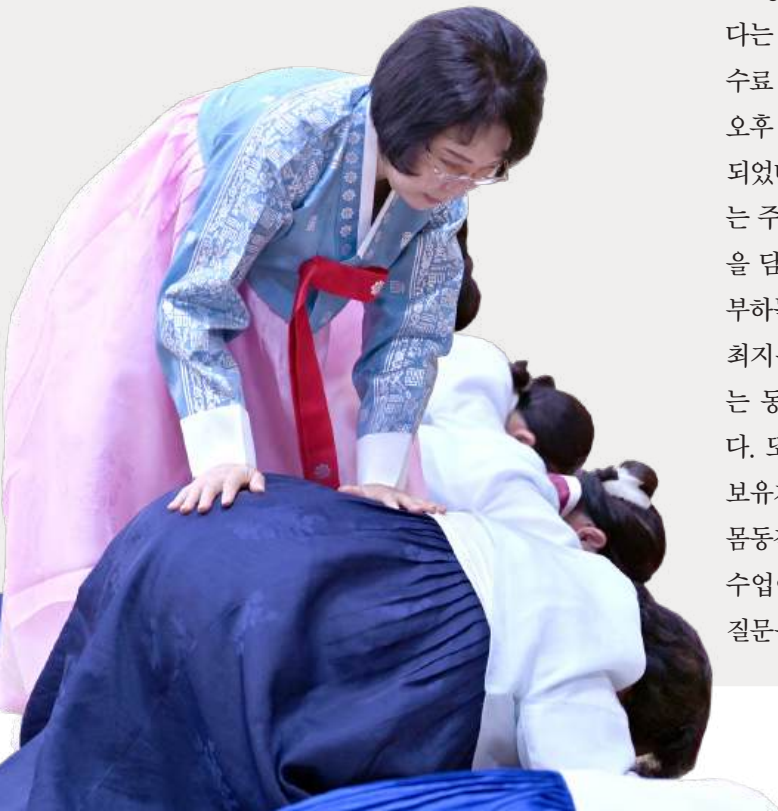




2024.06.29



2024.06.29



런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차문화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고, 수료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오후 1시부터는 규방다례 행다법 수업이 진행되었다. 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규방다례에서는 주인과 돕는이, 손님으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규방다례 행다례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최지원 이사와 이막동 이사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차문화대학원생들을 일일이 지도했다. 또한 최성미, 이기분 전수장학생은 최소연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들에게 손동작, 몸동작 시범을 보여주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질문을 했다. 최소연 보유자는 대학원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면서, 규방다례에는 다섯 가지 기본 정신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최소연 보유자는 규방다례에는 “전통 존중, 예절 존중, 과학 존중, 생활 존중, 청결 존중”이라고 말하며, “규방다례는 문헌적 고증으로 정립된 것으로 과학적인 이치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억지로 몸을 비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짜인 순서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행사법임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이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수업 내내 강조했다. ㉠

제22기 차문화 대학원 차 기행

2024년 6월 15일(토)~6월 16일(일)

경남지부 전문사범 박은화

바쁜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사는가 봅니다. 함께 한 사범님들 중 여유로운 사범들이 한 명도 없네요. 일상이 바쁘고 늘 뭔가를 하는 분들이 새로운 것을 찾고 또 배우고 하네요. 1박 2일 차 기행에서 바쁘고 힘들지만, 함께 끝까지 하자는 격려로 단합된 기행이었습니다. 숙소, 식사, 풍경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함께 한 사람이 가장 좋았습니다.

경남 하동 '한국의 아름다운 길' 중 하나인 차밭을 가로지르며 달려갑니다. 이 길은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싱그러움 속 아름다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숙소인 켄싱턴 리조트 도착입니다. 시설도 좋고 멋지네요. 황 사범이 차를 준비하고, 박 사범 다식을, 안 사범과 정 사범 과일, 사탕떡, 방울토마토, 경남지부장님이 보내 주신 맛있는 떡에 다들 놀랐습니다. 저는 다원 리조트에서 구입한 하동 녹차 쏘디기로 입맛을 다셨습니다.

리조트 거실에서 차담을 나누며 잘 지낸 후 우리는 차 시배지를 지나 쌍계사까지 걸어갔습니다.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는 통일신라 흥덕왕 3년(828) 당나



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신라로 돌아오면서 가져온 차나무의 종자를 왕의 명으로 지리산 줄기인 이곳에 처음 심었으며, 그 뒤 진감선사가 차를 번식시켰다고 전합니다. 화개장터 입구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양쪽 산기슭에는 야생의 차나무밭이 있으며, 이곳의 차는 대나무의 이슬을 먹고 자란 잎을 따서 만들었다 하여 죽로차 또는 작설차라고도 하지요.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는 우리나라 차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 곳으로, 지금도 야생의 차밭이 남아 있어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밭이 펼쳐진 길을 따라 건다 보니 몸은 무거워 지지만, 맘은 가벼워 어느덧 쌍계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쌍계사를 둘러보고 내려오면서 먹은 덕덕정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리산 끝자락의 기운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심다원 방갈로에서 시원하고 따뜻한 차 마시는 시간을 가진 뒤 몇 분은 먼저 가시고 점심으로 표고정식을 먹고 칠불사에 들렸습니다. 구름 위를 산책하듯 칠불사 아름다운 단청에 눈길을 빼앗겨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경남지부 사범반 제다실습을 한 부춘다원입니다. 여봉호 명장은 녹차 1호 명장으로 차맛이 일품이고 인품도 넉넉한 차인으로 예고 없이 방문한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귀한 차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부춘다원 찾자리로 차문화대학원 차 기행 모든 일정 마무리하였습니다. 동기 다우님들 반갑고 소중한 시간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치매! 예방 가능한가?

당뇨, 고혈압, 비만, 우울증, 운동, 흡연 관리로
치매를 예방해야!

‘이것 하나만 막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이를 먹은 것’입니다. 치매의 가장 위험한 인자는 ‘노화’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당면하게 되는 것이 치매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편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빠른 고령화입니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60세에 환갑잔치를 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의 저명한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 태어난 사람의 평균 수명은 90세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잘 발달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는 현재 70만 명이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노화라는 점에서,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치매는 ‘증상’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가장 많은데 원인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가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특징적입니다.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1907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처음으로 보고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1세 여성 환자가 기억력이 저하되고 남편에 대한 질투와 망상 등 착란 증상을 보이다가 4년 반 만에 사망했는데, 사후 뇌 조직을 부검한 결과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뭉쳐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위축으로 뇌가 쪼그라들고, 아밀로이드, 타우 이런 독성 물질이 뭉치고 쌓이면서 뇌세포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정상적이었던 뇌가 점차 퇴화하는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사실 증상이 나타나기 이미 20년 전에 걸려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이 처음에는 증상이 없고, 당뇨병이 있

치매예방에 도움 되는 12가지 수칙



규칙적인 운동



금연



건강한 식사



금주 혹은 절주



치매예방 인지훈련



지속적 사회활동 참여



적정체중 유지



정기적 혈압 관리



정기적 당뇨병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우울증 예방 및 치료



청력 감소 증상 관리

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실명, 혈관 파사 등 합병증이 나타나게 된 후에야 발견되기도 하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적인 퇴화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10년, 15년 이상 지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치매 치료의 최신 방향은 어떻게 치매를 예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치매인지를 알고 치료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완전히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의 단계를 3차, 2차, 1차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차 치료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4가지 약물이 치료에 쓰입니다. 이 약물들은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제입니다. 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고 인지 기능을 좋게 하고 이상 행동을 완화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약입니다.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2차 예방약인데, 아밀로이드나 타우, 염증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약을 쓴다고 해서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지,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아직 어떤 약 하나로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해 있는 동안 증상을 덜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현재 치료의 목표입니다.

3차에 해당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나 타우를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알츠하이머의 위험인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인자는 앞서 말씀드린 나이와 노화인데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아포단백,

e4/4 유전자형, 치매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도 예방할 수 있거나 스스로 조절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명한 의학 학술지 란셋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7가지 요인(당뇨, 중년기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운동 부족, 흡연, 저학력)을 없앨 수 있다면 치매 유병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혈관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이롭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운동은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50~60대가 넘어가면 근력이 급속하게 줄어드는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치매가 없는 45~88세 정상인 165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운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주 5회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한 경우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도 아밀로이드 침착을 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또 중요한 것은 퇴행성 질환을 늦춰주는 식단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마인드 다이어트 (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 Diet) 식단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을 반만 지켜도 치매 위험도가 35% 감소합니다.

<건강한 밥상 MIND 식단>

- 매일 짙은 녹색 채소를 포함한 채소 3회 이상 섭취
- 매일 견과류 3회 이상 섭취
- 매일 통곡물 3회 이상 섭취
- 베리류 주 2회 이상 섭취
- 생선 주 1회 이상 섭취
- 닭고기 등의 가금류 주 2회 이상 섭취
- 두부나 콩류는 주 3회 이상 섭취
- 붉은색 육류나 가공육은 주 4회 미만 섭취
-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가공) 치즈는 주 1회 섭취
-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 사용

건강한 잠도 치매 예방에 필수입니다. 잠을 잘 자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수면 부족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1,245명의 나이 든 여성을 5년간 수면 패턴을 추적 관찰했는데, 수면 효율이 높지 않을수록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은 다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고, 낮에 생활하는 게 피로감이 없는 정도의 수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면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뇌에는 아밀로이드 등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잠잘 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쁜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잠을 자는 동안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치매는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자 등 바꿀 수 없는 것 말고, 고혈압, 비만 관리, 담배, 우울증, 신체 운동 등 교정이 가능한 것을 바꿔나가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도 중요합니다. 낚시, 요리 등 나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고 머리를 자꾸 써야 뇌 손상을 막도록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십시오. 예방할 수 있습니다.🍵

茶 차 茶 차 茶 차

회원 글발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함안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차를 통한 다례예절과 다식 만들기

글_경남지부 이사(의령명림지회장) 조희옥



풀꽃

나태주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끝없는 배움은 소풍이다. 소풍 가는 날 아침. 비가 내렸지만, 마음은 뽕송뽕송했다.

여러 지역에서 참여한 초등학교생들과 학부모 대상 (30명) 으로 한 다례예절 체험(2회)은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처음 접한 생소한 체험이라고 활짝 웃으며 프로그램에 임했다.

차를 우리는 순서와 차를 마시는 방법. 다식을 만들어 먹는 방법. 짧은 시간에 최대한 함축한 다례 체험을 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며 공수법도 익히고,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신청하기도 했다.

차(茶)는 인간에게, 예(禮)를 갖추게 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 소박하고 검소하며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다례예절 체험은 예절, 존경, 조화, 인내 등의 덕목이 몸에 배도록 하여 여유롭고 안정된 정신문화를 되찾아 효행을 실천하며 성장하게 한다. 효(孝) 다례를 익히고 실천하여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생활의 근간(勲懇)으로 삼게 한다. 함안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다례예절과 다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함께해주신 경남지부 사범과 도와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



술~술

글_대구경북제1지부 사범 김영임

하얀 종이 위에
생각과 느낌
잉크로 굵적이고
크레파스로 색칠하는 것
재미가 술~술이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가볍고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
오선지 위의 술~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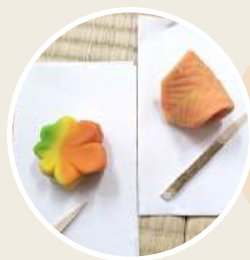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을 식히는 것
술바람의 술~술이다

내가 쓰는 것은
감히 詩가 아니고
그냥 술~술이다 ☺



대원사 다도회 “일본 차문화체험 기행기”

글_부산지부 기초반 한재필



바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란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삶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대원사 다도회”에 입회, 다도 수업을 시작했다. 다구의 종류, 차를 끓이는 법, 손님을 맞이하는 예법, 배워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일본의 다도는 다실에 입실하기 전 정원을 거치며 다실 입실 전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한다. 다실에 들어갈 때는 니지리구치라는 작은 문을 통해 들어가는 데 니지리구치는 좁은 문으로 되어있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실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야 함을 상징한다고 하니 그 의미 또한 그럴싸하다. 이렇게 일본



의 다도는 다실에 입장하기 전부터의 의식이 흥미롭고 다실을 구성하는 요소 또한 재미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다도는 가루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가루차가 워낙 유행하여 녹차를 우려 마시는 차법은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고 하니, 하나의 차맛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정착해 간다는 것이 재미있는 사실이다. 다실에서 직접 가루차를 만들어 마시며, 아기자기한 다식 또한 시식했다. 짧지만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다음 해외 차 문화여행은 베트남으로 가볼까 한다. 베트남의 차의 기원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 적어도 2000~3000년 전부터 차를 재배했다고 하니 재밌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제 자리 찾기란 쉽지 않아

글_대구경북제1지부 사범 이진우



자꾸만 쌓여가는 짐이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확신으로 부득이 쟁여 놓았다. 비운다는 것은 채우기 위함이라는 말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좁아터져 궁둥이 붙일 자리도 없다는 우스갯소리를 핑계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과감하지 못한 탓에 늘 우유부단했던 결정장에는 날 움아매기에 충분했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잘못된 일들을 예견하면서도 혹시나 하여 반복되는 자신이 연민스러웠다. 이참에 ‘과감하게’라는 말을 연발하며 우유부단함도 버리려고 한다. 육상에서 피니쉬라인을 지날 때의 감격과 환호는 말할 것 없이 기쁘겠지만 나는 마지막보다 그 시작에 집중하려 한다. 피니쉬라인을 통과하기 전까지 사력을 다하는 이들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려 한다. ‘제자리에’ 이 말을 들으면 모든 선수가 라인에 선다. 각자 몸을 풀거나 행동을 취하다가도 ‘제자리에’ 구령이 나오면 멈추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자신의 길을 가다가도 ‘제자리에’는 다시 출발선으로 서게 한다. ‘차렷’은 출발로 이어지기 전이라 가장 긴장된 순간이지만 ‘제자리에’는 그만큼의 긴장은 없다. 그러나 긴장을 폭발

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기 전 자유로웠던 행동과 마음을 진정시켜 고쳐먹는 시발점이 된다. 인생에도 그런 제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 알지 못하는 사이 너무 멀리 가버리기도 하고 돌아올 길을 몰라 헤매기도 하는 우리. 아니, 나. 필요했다. ‘제자리에’가 없었던 나에게는 이제 더욱 필요함을 느꼈다.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에 그 역할도 그 기능도 다 하지 못하게 된다. 다기를 든 손이 어디로 갈지 맏고립지 않다. 이리저리 방황하다 보면 결국 다른 잔과 부딪혀 잡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른 자리에 두다 보면 다른 불편함을 만들기도 한다. 다관이 그 자리에 있고 숙우가 또 퇴수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각각의 옳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차를 우리고 따르는 과정을 단순히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 속에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살다 보면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누군가와 부딪히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자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반복된 실패로 혼란스럽게 된다. 제 자리를 찾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에 추를 달아 놓을 줄 알아야 한다. ☺

상상만으로는 좋은 차를 우릴 수 없다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 2학기 고유나



다례를 배우고부터 든 생각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나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무더웠던 7월 여름, 서울 제1지부에서는 많은 다인들과 용기종기 마주 앉아 추억을 회상하거나 재미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며,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한 손엔 찻잔과 입가엔 꾸준한 미소가 얼굴에 머금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 매번 기다려진다.

사회가 만든 조급한 마음은 좋은 차와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메워 안정적인 마음을 꾸준히 만들어가 느리지만 점차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등 공예로 물방울 등을 만들게 되었다. 풀을 발라 흐물거리는 한지를 최대한 팽팽하게 붙여 조화롭게 만들어야 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자꾸만 엇나가는 종이들이 야속하기도 했다. 이때 모든 분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고요함 속에 집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작품의 꽃잎들을 붙이고 말리는 작업까지 다 하고 불을 켜는 순간 그 과정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나의 종강식에 대한 소감은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무더위에 흘리는 땀을 닦아가며 지부에 오는 이 순간까지는 정말 먼 길이라 느꼈지만, 막상 끝이 나고 돌아갈 시간이 되자 너무 아쉬웠고, 서운한 마음도 생겼다. 하지만 이 순간은 잠시 다도 수업이 잊힐 때쯤 우리는 개강식의 막을 올리게 될 것이다. 나는 종강식과 함께 새로운 일에도 도전할 용기를 찾았다.

이는 성취감이 만든 도전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상상만으로는 좋은 차를 우릴 수 없다. 그래서 종강식과 같은 행사는 매우 소중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차를 우리며 즐기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상상을 현실로 이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모이면 모일수록 반가운 얼굴들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 홍길선



매일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보이는 3층 한국차문화협회, 그리고 우연히 보았던 교육생 모집 글. 마음먹고 방문했는데, 온화한 미소로 맞아 주셨고 차문화 공간에서 마주치는 모든 분이 우리 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했다.

1학기, 경남 하동에서의 제다실습 때 몇 시간이나 뜨거운 불 앞에서 찻잎을 뒤으며 본격적으로 차인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후에 차인큰잔치, 코엑스 박람회 등, 특히 이번 3학기 종강식을 앞두고 이기분 지부장이 인솔하여 다녀온 찻집 투어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현재 3학기.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스며있는 것 같다. 이제 교육생 4학기라니. 차분하게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여, 시험 준비를 잘해야겠다.

평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직업적으로도 건강과 밀접한 일을 하고 있기에 '차'에 대해 접하면 접할수록 많은 장점이 보이는 거 같다. 차를 배우면서 나 또한 한층 더 성장하고 관계도 우수해짐을 느낀다.

커피나 자극적인 디저트, 음료에 밀려 우리 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졌지만, 우리 차와 차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려는 한국차문화협회에도 감사한 마음이다.

무엇보다 서울제1지부에 와서 여러 선배님께 따뜻한 사랑과 조언을 받을 수 있기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 반갑고 행복하다. ☺

“우리의 소중한 전통예절 문화교육” 열기 속으로!

글_서울제2지부 이사 문차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의 첫날, 동작구에 있는 동작문화원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우리의 소중한 전통예절 문화교육”이라는 주제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자격 과정이 개설된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회에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기본 예절 교육을 시작으로 차에 대해 알아보기, 규방다례 이해하기, 시대별 차문화, 인성 8덕목, 행다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개강 시간은 박광옥 부회장께서 직접 참여 하여 협회에 대한 소개 및 교육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강의의 장을 열어 주었다. 첫 시간에는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며 내면에서 잠자고 있었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며 본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것을 배우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나이 제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 좋은 강의일 것 같아 손녀딸을 데리고 참여하신 분 등 다양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해 주셨다.

60, 70대로 이루어진 교육생들의 배움의 열정은

뜨거운 8월의 날씨보다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듯했다. 강의 시간 내내 PPT 화면이 바뀔 때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교재에 열심히 메모하는 등 쉬는 시간에도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는 모습에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은 지부로 찾아와서 교육이 이루어진 방식에서 이번에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진행됨으로써 교육에 소외당하던 어르신들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서 동작문화원과 협회에 감사함을 느꼈다.

교육이 끝날 때까지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잘 타오르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 드려야 함을 다짐해 본다. ❶



국제 포교 세미나 찾자리를 마련하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허유진



지난 7월 20일 조계사에서 열린 국제 포교 세미나에서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에게 찾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금로제다의 송휴 거사와 정혜 어른 비구니 스님과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자리였다. 7월 19일 전북에 비가 많이 내려 송휴 거사가 서울로 못 올라올 수도 있다며 서울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지는 부회장의 말씀에, 모두 이번 행사는 한복만 들고 가뿐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에 적잖이 당황했다.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박광옥 부회장님 이하 장효순 이사, 류소영 이사, 그리고 나는 하룻밤 사이 찾자리에 필요한 것들을 조율하고, 바리바리 짐을 싸고 조계사로 향했다.

다행히도 이번 찾자리는 다식을 놓지 않고 진행한다고 하였었는데, 도착해보니 바나나와 방울토마토가 배달되어 있었다. 우리 찾자리에 쓰라고 지방에서 배달시킨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옆자리에서 준비하셨다고 하며 어차피 스님들께 공양하기 위해 가져온 거라며 우리에게 나눠주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님들께 드린다고 장효순 이사는 밤양갱을 만들어 오고, 나는 금굴정과와 도

라지 편정과를 가져와서 행사 준비에 보탬이 되었다. 덕분에 풍성한 찾자리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박광옥 부회장님은 무더운 더위에도 계속 서서 갈증을 해소할 시원한 가루차와 금로제다의 첫물차, 비타민씨 가득한 귀한 고욤차를 따끈하게 계속 우려주셨고,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오셔서 차와 다식을 맛보시며 대접받는 거 같다고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강행군으로 몸은 파김치처럼 지쳐있는 가운데 고맙다, 맛있다, 강의실이 추웠는데 따뜻한 차를 마셔서 기분이 좋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에도 열심히 차를 우려주시는 박광옥 부회장님, 다식과 물이 떨어질세라 열심히 주변 정리를 해주신 장효순 이사, 일일이 차를 따라주며 대접하신 류소영 이사, 열심히 찾잔을 정리하던 나, 누구 하나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하루였다.

이번 행사를 마치며 행사에 참여한 팀원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히 임할 때 일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❷

동작문화원 지원사업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을 마치고~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정순영



동작문화원 지원사업에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1지부와 서울제2지부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3회기로 진행하였다. 1회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2회기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3회기는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으로 진행했다.

내가 진행했던 부분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이었다. 차와 차로 배우는 다도 예절, 다식 만들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수업과 생활차 우리기(행다), 다식 만들기의 실습으로 진행했는데 수강생 어르신들의 호응은 무척 좋았다.

차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많으셨고 질문도 많이 하셨다. 생활차 우리기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다. 3시간 동안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환희를 보았고 반짝거리는 눈, 배우고자 하시는 모습과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았다. 시종일관 관심을 두시면서 많이 호응해주셔서 강의하는 즐거움도 있었다.

다식 만들기 시간에는 전통 다식 중 송화다식 설명할 때 어르신들이 송홧가루 채취해서 송홧가루 만

드는 과정을 기억하고 기억을 살려 설명해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수업 시간 내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여유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에 감동하였고, 수업하고 난 자리도 같이 정리해주는 어르신, 수업이 정말 좋았다고 가방에서 과즙 하나 꺼내주시는 어르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며 가시는 어르신, 끝까지 질문하면서 자리를 떠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한 느낌이 들었다. 참석하신 어르신 중에는 연세가 꽤 있으신 두 분이 계셨는데 보조강사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드려 감사했다.

습도가 높은 찜통 같은 무더위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방문하셨던 어르신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수고스러움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한국차문화협회와 동작문화원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성과 수고로 함께한 보조강사들에게 감사드린다. 🙏

또 가고 싶은 스리랑카 홍차 여행

글_충북지부 전문사범 허윤숙



한국차문화협회 충북지부는 매년 국제차문화교류전 유어다에(遊於茶藝)를 충청북도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 올해는 인도양의 진주 실론티의 본고장 스리랑카로 여행을 떠났다.

첫 여행지 시리기야와 황금 석굴사원을 관광했다. 황금 석굴사원은 199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담불라 황금 사원은 약 2200년간 내려온 신성한 성지순례 유적지이다. 5개 석굴로 이어지는 황금 사원은 스리랑카에 있는 석굴사원 가운데 가장 크고 보존이 잘되어 있다고 한다. 여행 5일 차, 누와라엘리아에 있는 페드로 다원을 견학했다. 페드로 다원은 밤에 일한다고 한다. 페드로 다원은 전통 방식으로 차를 제다 하는데 위조, 유념, 산화, 건조, 선별, 포장을 한다. 유념을 몇 번 하느냐와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여행 6일 차, 일출을 보러 새벽 5시에 호텔을 출발했지만 아쉽게도 일출은 보지 못하고 운무 사이에 모습을 조금 숨기며 높이 솟아오른 태양과 높은 곳에서 아래로 펼쳐져 있는 차밭을 구경했다. 하푸탈레에 있는 립튼시트 Dambathenne다원 견학 후 우바 하일랜드 다원을

견학했다. 이곳은 색 선별하는 기계가 있어 좀 더 좋은 품질의 차를 볼 수 있었다. 우바는 7월 8월에 생산하는 차가 맛있다고 한다. 여행 8일 차 되는 날, 루후나 지역에 있는 림비나 다원 견학을 했다. 다른 다원과 달리 자기네 브랜드 이름으로 차를 판매하고 있었다. 저녁 후 다 같이 모여 다원을 견학하며 구입한 홍차를 우려 마시며 여행 마지막 밤을 즐겼다.

이번 홍차 기행은 어느 해 세계차문화교류전보다 알차고 보람된 여행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홍차에 관해 다원 견학을 통해 확실히 이해되고 홍차에 관한 관심과 넓고 깊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茶, 전통음식 문화와 직업의 세계

글_전남지부 이사 김경자



전화가 왔다고 멜로디가 울린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담양공업고등학교 박순아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찾아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 명인. 명장들이 프로그램을 냈는데 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담양권이어서요. 순간...”

선생님께서도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하시다며 마운다미원을 찾아오시겠다 하신다. 나 역시 만나 뵙고 싶어 바로 날 잡아 약속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드려야 할까? 차를 좋아하실까? 등등 고심하다 정성껏 찾자리를 준비하여 기쁘게 맞이했다. “좋아하시는 차가 있으실까요?”

편하게 차를 내어 서로 궁금 사항을 이야기 나누었다.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긴장이 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으시다며 말씀하시고 가셨다.

방과 후 시간과 토요일을 정하여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뒤로 수업 준비를 했다. 첫 만남이라 설렌다. 어떻게 해야 첫 만남이 편할까? 개인 찾자리에 개인 다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여러 가지 다식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데 왜 내가 떨릴까. 어서 들어오렴. 아이들의 눈빛이 어리둥절 편하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렴. 입을 틀어막고 안절부절못한다. 선생님께서 서로를 소개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웰컴 티로 홍차를 내었다. 너무 좋아한다. 학생들도 긴장이 풀리며 다식도 편히 즐긴다.

수업 도중 한 아이가 나갔다. 선생님께서 뒤 따라 나가신다. 걱정이 되었지만 아무런 일이 없듯이 아이들과 6대 다류를 배우고 마시며 즐거운 첫 시간을 마쳤다.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는 듯해 다행이다.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께 물었다. 선생님의 찾자리를 보니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다 한다.

할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나보다.

차의 기원과 6대 다류. 생활다례 행다법. 전통문화와 전통다식. 전통과 현대 디저트의 변화. 구용구사를 통한 올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 익히기. 병과 체험. 다양한 포장법. 보성다원과 차 박물관 방문과 녹차와 홍차 제다 체험 등 주제로 7회차 수업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차를 접하며 차에 관심을 두고 행다를 배우며 그 안에서 5대 존중의 정신을 익혔다. 수업을 몇 회 하고 난 다음,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례원에 갔을 때 처음 접해보는 대접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에게 꼭 경험해 주고 싶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차가 주는 마음이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교실 창문 밖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수업이면 신청할 것을 하며 신청 못 한 아이들이 아쉬워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보성의 차밭 가는 길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었다. 청우다원 도착 사장님께서 직접 녹차를 우려 주시고 녹차 쪼드기. 아이스크림 등 챙겨 주시며 손주에게 사랑을 주시듯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다.

잠깐 비가 멈춰서 차밭에 올랐다. 처음 보는 넓은 차밭이 신기한가 보다. 차밭에서 채엽하고 인증사진. 또 비가 내린다.

홍차 제다 설명과 함께 체험도 해 보고 사장님께서 다양한 기계들 설명에 아이들이 관심을 두고 설명을 잘 듣는다. 차 박물관 관람. 우리 협회에서 기증한 다구들과 차에 관한 다양한 설명과 관람. 허경림 이사님을 만났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아이들과 관람 왔더니 기꺼이 다례 체험과 더불어 편하게 인터뷰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불 해 주시고 그곳에서 인터뷰를 편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

다. 차가 있는 곳에서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님들이 많아서 참으로 든든하고 협회 회원으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날이기도 했다.

6회차 수업에 교장 선생님께서 참관해 주셨다. 수업 내용이 참 좋으시다며 7회차 마지막 수업을 또 함께해도 되겠냐 시며 기꺼이 토요일 쉬는 날을 반납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 지식 전달로 수업이 진행되었지, 하였는데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처음부터 함께 못 한게 아쉽다고 말씀해 주시며 명인프로그램 수업에 감사의 말씀을 주셨다. 아이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으로 수업이 잘 끝나도록 도움을 주신 박순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아이들의 느낌을 들어보았다. 차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어 좋았고 대접받은 느낌이 좋았으며 벌써 끝난다니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직업군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듯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차를 가까이 하기를 바라보며 우린 단톡도 지우지 않고 서로 소통하기로 했다. 또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전문사범 박숙희 선생님, 준사범 정경미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❷



UN 공공행정 포럼 문화행사 참여

한국 전통 다례 체험 희망자
34명 대상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UN 공동주최로 IFEZ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에서는 UN 공공행정 포럼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프라인 포럼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준화 유엔 사무총장 등 해외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위 기간 중 6월 25일에 규방다레는 인천광역시 의뢰로 포럼에 참여하는 장·차관급을 대상으로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한국의 전통 다례 체험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신청받은 희망자 34명을 대상으로 2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조영아 이수자, 류소영 이수자가 체험을 진행하였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 언어 전달의 한계와 한정된 시간에 제대로 된 체험은 어려웠지만, 한국의 좌식문화와 예절, 전통 다례를 체험했다. 세계 각국의 장·차관급들이 참여하는 국가 행사다 보니 사복경찰과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 속에 진행된 행사였지만, 진행 보조로 봉사에 참여했던 인천지부, 서울제2지부 회원들도 뜻깊은 행사라고 입을 모았다. 🍵



전국 차인큰잔치 준비로 바쁜 중에 규방다레는 북촌문화센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북촌문화센터에는 상주하는 해설사와 직원이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 서비스교육의 목적으로 예절(서비스)교육과 다례체험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담당자는 어느 곳에 문의할지 자료를 찾던 중 규방다레를 설명하는 글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배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 연락했다고 한다. 체험에 필요한 다기 세트를 비롯한 비품들을 다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강사비와 운송비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최소연 규방다레 보유자께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규방다레보존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소영 이수자가 맡아 5월 31일 북촌문화센터에서 다례체험을 진행하였다.

손수 정성스럽게 만든 다식과 따뜻한 차 한 모금은 지친 일상 중에 마음의 위안과 큰 활력이 되었다며 담당자는 감사 인사와 함께 사진을 보내왔다.

이 기회가 인연이 되어 류소영 규방다레 이수자는 북촌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상설 교육 프로그램 '북촌문화강좌' 공고에 지원하였고, 선정되어 오는 9월부터 다례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북촌문화센터 상주 직원과 해설사 대상 다례체험 실시

시민 서비스교육 목적으로 진행



2024년도 인천 무형문화재 이수 심사 진행

문차남 전수자 무형유산
규방다례 이수자 통과

지난 6월 27일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풍류관에서 2024년도 인천 무형유산 이수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이수 심사 대상자는 서울제2지부 소속의 문차남 전수자가 홀로 진행되었다.

이번 심사에는 규방다례의 주인과 팽주, 손님들 서로 간의 협연 능력도 평가하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사전 제안으로 작년에 이수 심사를 통과하였던 서울제2지부 소속 회원인 류소영 이수자가 돕는 이, 손님으로 장효순, 허유진, 윤채영 외 전수자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서 문차남 전수자와 함께해주었다. 이들은 이수 심사를 앞두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오고 가며 연습에 땀을 흘렸고, 연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전승자들은 행다 연습 외에도, 이전 심사에 질문으로 나왔던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여러모로 힘을 실어주었다.

많은 이들의 바람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들의 노력으로 7월 26일 자로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이수 심사 합격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인천 무형유산 규방다례는 보유자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미리, 박광옥 2명의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34명, 전수장학생 2명으로 더욱 탄탄한 전승 체계를 갖췄다. ㉠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으로는 현재 29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약 300여 명이 넘는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장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제13조(정기조사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5년마다 종목별 전승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규방다례는 지난 7월 22일에 본 연구 용역을 담당한 연구원들이 보존회에 방문하여 최소연 보유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연구원들은 전수교육의 내용과 진행 상황, 전승자들의 전승 활성화 내용 및 참여도, 그리고 전수교육의 시설 및 집기 현황, 지원금 관리 현황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최소연 보유자는 이에 따른 현재 전승 현황을 보고하고 전수교육의 내용과 활성화 및 어려움과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기조사는 올해 11월까지 계속 진행되며 연구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사항에 따라 보존회는 이에 따른 현황 자료 및 증빙자료를 8월까지 제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2024년도 인천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실시

최소연 보유자 인터뷰 진행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님 묘소 이장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분당메모리얼파크 內 Forest Heaven 단지
‘유명인사 묘역’으로 이장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묘소가 분당메모리얼파크 내에 있는 Forest Heaven 단지인 ‘유명인사 묘역’으로 이장하게 되었다.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묘소가 이장되는 곳은 한국 문화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유명인만 모시는 특별한 장소이다.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초의상 수상 등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로 한국 차문화의 선구자로 『유명인사 묘역』에 봉안하게 되었다. ❶

- 묘소이장일: 2024년 9월 8일 일요일 오전 7시.
- 추 모 일: 2024년 9월 10일 오전 11시 분당메모리얼파크 ‘유명인사 묘역’.
- 위 치: Forest Heaven 단지 6계단 1번 묘역.
- 회 원 번 호: NO. 8998



선덕차인(宣德茶人) 인설 이귀례 추모비

최지원 신임 인천지부장 임명장 수여

최소연 이사장,
협회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



2024.08.18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은 지난 8월 18일 최지원 신임 인천지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광용 지부장의 뒤를 이어 신임 지부장으로 최지원 이사가 임명되었다.

최지원 신임 지부장은 “인천지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도 앞서지만, 최선을 다해 차문화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과 회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우리의 차문화 발전에 헌신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흔쾌히 신임 지부장으로 승낙해 준 최지원 지부장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협회 발전과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❷



2024.08.18



전국 차인큰잔치와 제63회 하계연수회 건으로 토론

전국 지부장과 임원 30여 명 참석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 협회 교육장에서 6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민달래 팀장의 성원 보고와 이사장 인사 말씀, 이사회 회의록, 안건 상정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각 지부장,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6월 정기총회는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과 김경자 회원이 점심을 마련해 주

었다. 전남에서 준비해온 음식 모두가 정성이 가득했다. 임원들은 점심을 함께하면서 지난 '차의 날 기념 및 전국 차인큰잔치'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점심을 함께한 임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협회 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며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 1시 정기이사회 개회가 시작되어 국민의례와 이사장 인사말이 있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제44회 차의 날 기념 및 제35회 전국 차인큰잔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지부장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여러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행한 찻자리 대회에 대한 장단점을 자세히 검토하여 다음 대회에서는 더욱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음식 경연대회에 많은 지부가 참여하여 내실 있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거울삼아 다음 대회는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을 마련해 주신 전남지부 서난경 지부장과 김경자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민달래 팀장은 안건 상정 및 토의로 제1안 제44회 차의 날 기념 및 제35회 전국 차인큰잔치 결과 보고, 제2안 7월 자격검정 시행 계획, 제3안 제63회 하계연수회 계획, 제4안 제70기 지도사범 계획, 기타 안건으로 이사 준칙 사항을 상정했다.

임원들은 각 안 건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협회의 모든 행사에서 '개회식 때는 모든 회원이 행사장으로 집합하도록 했으며, 7월 자격검정 시험은 회원 수가 급속히 감소한 원인'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3안 하계연수회 계획에서는 강사 추천 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6월 정기총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이사 준칙 사항에서 '협회 임원은 타 기관의 임원으로 병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 준칙에 명기토록 하여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도록 했다. ☺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 일행 협회 방문

최소연 이사장과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지난 7월 9일 일본 교토지부 조화미 지부장과 회원 4명이 협회를 방문했다. 교토지부는 우리 협회의 27번째 지부로 일본에 한국 차문화를 소개하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이다. 조화미 지부장은 교토지부에서 매년 요시다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차문화협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교토지부가 있는 교토시는 일본 교토부 남부에 있는 최대 도시다. 이곳 교토지부에 우리 협회 27번째 교토지부가 있다. 최소연 이사장과 교토지부 조화미 지

부장은 협회 교육장에서 차문화 현안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토지부 방문에는 협회에서 차영민 부회장과 이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조화미 교토지부장에게 “교토지부가 차문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화미 지부장이 교토지부를 잘 이끌고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매년 자주 보는데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차영민 부회장은 “교토지부가 한국 차를 소개하여 국위선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항상 협회 일이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교토지부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림 지부장은 “교토지부는 한국 지부장들의 본보기입니다. 교토지부를 훌륭히 이끌어 가시는 지부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했다. 조화미 교토지부장은 “한국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는 최소연 이사장님과 협회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협회 방문은 몇 가지 이사장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화미 교토지부장과 함께 온 교토지부 회원들을 소개하면서 “이번 한국 방문은 우리 회원들에게 한국의 차문화를 견학시키는 것과 경남 하동 녹차와 홍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방문을 겸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화미 지부장은 “일본 요시다 축제 때 한국차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차를 사고자 하는 분들의 상담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도 한국의 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 하동 녹차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질 좋은 녹차를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의논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한국의 녹차가 가격 편차가 심합니다. 가격이 비싼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고 저는 여러 번 회원들에게 말해왔습니다. 차 색이 투명하고 맛이 좋고 향이 좋은 값싸고 질이 좋은 차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조화미 지부장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표하며 한 가지 요청한다며 “교토지부에서 인성차문화 예절지도사 3급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수자분들이 와서 심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소연 이사장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협회에서 교토지부로 규방다례 이수자를 파견하는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조화미 지부장 등은 점심을 함께하면서 양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다담회를 가졌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 타계



한국차문화협회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이 지난 2024년 7월 4일 숙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79세.

고(故)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은 한국차문화협회 창립 초기부터 활동하여 타계할 때까지 한국차문화협회 교육위원장으로 헌신적인 활동으로 회원들의 모범을 보여주어 주었다.

그는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올바른 차문화 정립과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차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협회 교육자료에 힘을 썼다. 또한 고 이원종 전 교육위원장은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과 함께 하동의 대다수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을 몸소 실천하여 차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최소연 이사장은 “고인은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협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한국 차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었고, 협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누구보다 우리 차문화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분이었다. 타계할 때까지 한국의 차문화 발전에 헌신했던 분이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한국차문화협회 임원진은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분이 걸어왔던 길을 되새김하면서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월 6일 치러졌다.

장지는 용인천주교 공원묘원에 모셨다. ❷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 사랑방 (가나다 순)

강원지부 · 경기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나주시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동수원지부 · 보성지부
부산지부 · 서울제1지부 · 서울제2지부 · 수원지부
순천지부 ·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전북지부
충남지부 · 충북지부

강원지부

육군사관학교에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대제 헌다례

강원지부 헌화, 헌다 및 찻자리 마련



지부장 김미숙

지난 6월 22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국군 불교총신도회에서 주관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대제가 봉행되었다.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순국선열을 비롯해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과 UN 참전용사, 군 복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과 희생의 정신을 본받고자 군종특별교구가 주최해온 추모 법회다.

이번에 열린 제24회 위령대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을 대대손손 이어갈 의무가 있다.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종단이 직접 위령대제를 개최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추모제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혀 내년부터는 국가적 행사로 승격되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위령대제가 될 것이다.

이날 위령대제에 강원지부는 영단에 헌화(獻花)와 헌다(獻茶)를 올리는 의례(儀禮)를 봉행하였으며, 참석하시는 손님들께 찻자리도 함께 준비하여 차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의장, 군종교구장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 선임군승 및 군종 법사 국

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과 에드워드 쿠에바스 주한 미군 국방무관, 질 매랙 주한캐나다 국방무관, 각 군법당 신도회,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국군 불교총신도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법회가 진행됐다.

‘호국영령 위령대제’는 호국과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주요 의례로 평가받는다. 내년부터 국가적 행사로 승격된다면 장병들의 호국 의지를 고양함과 더불어 전 국민이 국운융창과 무운장구를 발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_강원지부장 김미숙



경남지부

경남지부 제69기 제다실습 차 한잔을 마시기 위한 노고를 깨닫다



지부장 황미경

지난 5월 12일, 섬진강이 굽어 흐르는 하동 부춘다원에서 안천 여봉호 명장의 지도로 제69기 제다실습을 하였다. 10시에 집합하여 인사 나누고 소개 후 산 중턱에 있는 부춘다원에 도착했다. 아침에 비가 그쳐 말끔한 찻잎이 더욱 싱싱하고 구름이 적당한 그늘을 드리우며 바람도 간간이 불어오고 날씨가 참 좋았다. 이런 날씨는 찻잎 따기에 더없이 좋다고 한다. 멀리 형제봉을 바라보며 한 잎 한 잎 채다하다 보니 어느새 바구니가 차올랐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른 차 바구니를 모아보니 작품처럼 멋지다.

처음 경남지부에 들어올 때는 이런 차밭에서 호사를 누릴 줄은 몰랐다. 인천 행사를 준비하면서 집을 싸고, 옮기고, 차내고, 정리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아직은 교육과정이야 약간씩 경험하는 정도이지만 차 한 잔을 제대로 마신다는 것이 참 많은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세 덩음으로 맑은 녹차를 만들어 보았다. 집에 와서 우려보니 맑은 연두색에 차 맛도 싱그럽다. 채다, 찻잎 따기, 바람쐬기, 술 온도 올리기, 차 덫기, 널어 식히기, 약하게 유념 3회, 건조, 가향 처리, 가루 털어내기, 포장, 제다 보고서 작성, 완료 마무리, 해산 인사.

사범반 차 만들기에 동행해주신 사범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웠다. 자료준비까지 꼼꼼히 해주신 지부장님과 제다실습을 지도해 주신 안천 명장께도 감사하다.

글_사범반 제68기 임현섭



인성 8덕목

차를 마시며 예절 배우기

저는 차문화를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22기 차문화대학원에 입학하였습니다.

차문화대학원 1급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과제로 교육기관을 통한 인성예절교육 실습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것은 저에게 큰 어려움과 막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곳에 알아보던 중 칠서어린이집 원장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평소 원장님께서 다도 수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제가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성예절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지부장님과 선배 사범님께 의논하여 <인성 8덕목 차와 예절 배우기>라는 주제로 22기 차문화대학원 경남지부 동기생들과 사범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실습의 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실습은 교육 사범님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진행하였고 부족하거나 놓친 부분은 지부장님과 교육부장님의 꼼꼼한 지도로 알찬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다례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하루가 다르게 익히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따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고 한복을 입고서 서로에게 이쁘다며 좋아하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수업을 듣는 모습은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친구가 우려주는 차를 마시고 “꿀 맛이 난다, 이상

한 맛이다, 승냥 맛이다, 몸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비님을 기다리면서 “선비님은 왜 안 오시나요?”라며 궁금해하고 배운 다기들의 이름을 나름대로 기억하여 대답하는 모습들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6~7세 아이들에게 인성예절교육을 하면서 제가 차문화를 배우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



간이 되었습니다. 조희옥 지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소중히 가지고 계셨던 교육용 다기들을 물려주셨고, 다른 선배 사범님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교육 실습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지부의 사범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더욱 노력하고 1급 과정을 수료하여 활동하며 차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글.전문사범 안선희



인성차예절지도사 자격검정 준비

차문화에 대한 소명 의식으로 시작

제66기 사범반 인성차예절지도사 2급 자격검정 필기와 실기 연습하였다. 범정 스님은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글에서 ‘우리가 늘 배우고 전문 지식을 익히고 그 길에 한평생 종사하는 것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차문화에 입문하고 인성차예절지도사 범 과정을 이수하며 자격검정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을 다듬고 차문화와 무형유산인 규방다례 등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소명이라고 여긴다. 이번엔 수료 예정인 제66기 한 사람을 위해 지부장님과 사범님들이 뜻 모아 자격검정 준비와 차문화 기행에 함께 하였다.

글.전문사범 김둘자



광 주 지 부

달빛에 그린 다도

차를 통해 전해지는 따스함이 사랑으로

한국차문화협회 22기 대학원생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중반 언덕까지 이르렀습니다. 늘 한고비 넘기면 가벼운 한숨과 홀가분함이 해냈다는 뿌듯함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실습 16시간의 과제는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지부장 박혜란

청소년을 위한 차 예절 인성 교육이 학교마다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내가 실습할 장소는 어디일지 기대되기도 하는 그런 와중에 광주지부 김보련 전문 사범님이 석사 논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 치유」 웬지 가슴에 와닿았고 꼭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어 사범님께 양해를 구하자 오히려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는 말과 함께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달빛에 그린 다도”

차와 마음 치유 기법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상자는 지적 발달 장애인이었고 장소는 영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였습니다.

처음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소 소란스러운 면은 있었으나 찾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대상자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 맑은 미소로 맞이해주는 대상자들에게서 오히려 내가 위안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환복을 차려입고 대상자들 앞에 서자 예쁘다며 환

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들의 찾자리를 도와주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범님의 진행은 물 흐르듯 매끄러웠고 대상자들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 했습니다. 시작은 공수와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현재의 기분을 표정으로 그려보고 그 표정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게 하는 등 대상자들의 관심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그려면서도 편안하게 만들어 차로 연결하였고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다관에 붓고 잘 우려내어 찻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찻잔을 잡는 법과 차를 내려다보면서 색을 감상하고 코로 향을 맡아보고 한 모금하여 입안에 퍼지는 맛을 음미하도록 하자 서툴지만 잘 따라오는 대상자들을 보면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상대방에게 차를 권하는 것과 차를 마신 후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는 엉뚱하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었을 때 저들만의 언어와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찻

자리가 끝나고 찻잔을 따뜻한 물에 씻어 깨끗하게 물기를 닦고 보관함에 넣는 것까지 깔끔하게 뒷정리를 해내었습니다.

차인으로서 차를 대하는 마음이 먼저 잘 정돈 되고 한 잔의 차일지라도 색과 향과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비단 차인이 아닐지라도 한 잔의 차가 주는 여유와 위안을 발달 장애인인 저들에게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는 사람들 간의 마음을 이어주고 생각을 이어주며 나아가서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역할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차가 따스한 온기를 주면 마음이 열리고 몸이 기운을 받아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전환되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나 봅니다.

저들이 비록 발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의 에너지를 듬뿍 받아 행복한 나날을 지속해서 보내길 바라봅니다.

글_지도사범 민선미



교 토 지 부

한일교류다도회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나누다 개최

교토지부 회원 생활다레, 선비다레 선보이다

교토지부는 지난 5월 26일 민단 시가현 본부 주관으로 『한일교류다도회 차-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나누다』를 개최했다. 일본 측에서는 우라센케의 「류에르 샤나야카 일호회」가 맡았다.

약 100여 명의 내외손님을 모시고 진행된 전통 차 나누기는 성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

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차 회장(會場)으로 쓴 『로카 센수이소우』는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이며 비와 호수를 차경으로 하여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이다.

한일교류다도회에서는 생활다레, 선비다레를 선보이고 손님들은 가루차, 쑥차, 연꽃차를 시음하고



지부장 조화미



전통 다과를 맛보았다.

참가자들은 친구들과 예쁘게 차려입고 즐겁게 지내는 「차회」의 매력에 빠졌다며 가을에 또 한 번 교토지부에 차회를 열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차와 일본의 차 문화를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보람을 느꼈다.

대구경북제1지부

선후배 상견례를 통해 한마음이 되다

대구경북제1지부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



지부장 박경숙

지난 6월 10일 대구경북제1지부 교육생들은 지부 발전을 위해 후원해주는 선배님들을 위한 찾자리를 마련했다. 교육생들은 선배님들을 위해 다식과 과일 등을 준비하여 후원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교육생과 선배들은 서로 소개하면서 화기애애한 자리를 마련했다. 상견례를 끝내고 2차에는 예쁜 찾자리로 옮겨 다담 시간을 가졌다.

다담 자리에는 녹차, 보이차, 가루차가 제공되었으며, 찾자리는 대학원반 최수연(도함도예)의 주도로 이루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마음을 내어준 교육생들께 박경숙 지부장은 “참으로 고맙다.”라고 말했다.

선배 사범님 또한 여러 가지 간식과 아름다운 음식

을 마련해 주어 찾자리는 더욱 풍성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범회가 되었다. 차가 이끌어 주는 인연은 항상 아름다움이 기다려진다. 후배들의 열성과 성의에 선배님들도 항상 배려하며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서울 제 1 지 부

우리의 문화 있다!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공동으로 진행



지부장 이기분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한국차문화협회가 선정되어 서울제1지부와 서울제2지부가 함께 ‘우리의 소중한 전통 예절 문화교육’을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이 첫 시간으로 김미경, 이은영, 고영화 회원이 진행했다. 총괄 진행은 박광옥 부회장과 이기분 지부장이 진행해 주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예절교육’, ‘다도 자격증 교육’,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 입기’ 등으로 대상자별로 진행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절교육은 첫날이라 취소자도 생기고 6~7가족이 참여 신청하였으나, 3~4가족만 참여하게 되어 너무 아쉬웠다. 참가한 어르신 자매, 부부가 함께 참여하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인상적인 소감에 “나에게 차는 일상생활이다”, “나에게 차는 참숯이다”로 답하신 부부가 생각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서 기쁨 또한 컸다. 하반기(7월~11월) 사업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즐겁게 차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 나눔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글.전문사범 김미경



서울제2지부

유엔 공공행정에 참가한 외국인에게 다례 소개

우리의 전통 다례를 체험하면서 차문화 공유

유엔 공공행정 포럼에서 규방다례 보존회에 각국 인사들에게 규방다례와 차, 한국적인 것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다고 의뢰가 들어와 이수자들과 전문 사범 등이 수업을 했다.

세계 각국이 모여 공공행정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행정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유엔 공공행정의 날이 열리고 있다.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해 회원국의 행정혁신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행정발전을 지원하는 국제 행사다.

6월 27일은 포럼 참가 외국인 중 3개 분야의 프로그램 정책 견학을 운영했다. 그중 문화, 체험 분야로 인처도호부관아 무형유산전수관에서 다례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일정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도 문화체험으로 우리 다도를 배우러 오신다니 마음이 설레었다. 한꺼번에 몰려온 외국인들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좌식이 불편하고 집중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인사말 '공수'로 시작하는 우리의 예법을 배우며 신기해했다. 또한 행다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따라 할 때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때때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다식에 대한 궁금증도 물어보고, 아름답다고 칭찬도 잊지 않았다. 체험이 끝나고 떠나면서 '공수'로 소리치며 인사하여 한바탕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외국인에게 우리의 다례 체험을 할 수 있어 기뻐다.

글 이사장호순



지부장 박광옥



꽃과 함께하는 즐거운 종강식

선생님들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해바라기, 리시안 셔스, 장미, 스프레이 장미, 마트리카, 보리사초, 하이베리쿰, 유칼립투스, 그리고 예쁜 우리 선생님들. 서울제2부(박광옥 지부장)의 종강식에서 볼 수 있는 꽃들입니다. 우리 지부는 이금희 전문사범의 지도로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또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로 줄 꽃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빈 바구니와 각각의 꽃들을 앞에 두고서 누구보다 경건한 표정으로, 진지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선생님, 장미를 좋아하는 선생님, 유칼립투스를 좋아하는 선생님, 각자가 좋아하는 꽃은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바구니를 만들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각의 매력을 가진 꽃들과 각각의 매력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만든 꽃바구니가 궁금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꽃들과 바구니로 만든 결과물은 정말 똑같은 것이 하

나도 없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꽃바구니를 만드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꽃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예쁘게 어울리는 꽃바구니처럼 다양한 재능과 뛰어난 솜씨를 가진 우리 선생님들도 서울제2부에서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는 가장 잘 보이는 정면만 예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쪽을 예쁘게 꾸미기에 바빠서 옆이나 뒤쪽을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구니를 돌려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도 꽃을 꽂고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습도 비슷하겠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살필 줄 아는 차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글 사범 안난희



북촌한옥마을에서 다례 수업을 진행하다

상주 해설사와 직원 대상으로 전통차 소개

북촌한옥마을에서 5월 31일에 상주 해설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례 체험을 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왔다.

북촌한옥마을에 계시는 해설사 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이 규방다례와 전통차에 대해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업 준비를 위해 장효순 이사와 많은 의논을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서도 흥미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에 대해 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고 다구와 다식을 준비해서 갔다.

북촌 하면 서울 한복판에 한옥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이다. 그곳을 구경하러 갔으면서도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았다.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알아보니 대청에 유리문을 달고, 처마에 잇대어 함석 창을 달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북촌의 한옥은 전통적인 한옥으로 우리

고유의 유형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근대적인 도시조직에 적응하여 새로운 도시주택 유형으로 진화했다.

일찍 도착하여 예쁜 한옥의 방들을 지나 안방이라고 소개해주는 방에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하며 우리나라의 예쁜 한옥에 대해 느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우리의 전통과 규방다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대용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준비해 간 다식도 생활다례 행다를 배워보고 자신이 우린 차와 같이 마시며 먹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수업이 끝나고 해설사 선생님과 직원분들이 너무 맛있다. 다식이 예쁘다.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좋았다고 하시는 말을 들으며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했다.

글: 이사 류소영



수원지부

외국 청소년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 소개

한국 문화에 외국 청소년들 감탄 연발



지부장 정경희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중국 지난시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예절 문화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청소년들은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학생들로 방학을 맞아 화성행궁도 둘러보며 다양한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부는 학생들에게 한복 바르게 입기 체험을 통해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설명해 주었고, 한복을 입은 후 단체로 사진도 찍어 주었다. 전통문화 체험에서는 올바른 인사 예절, 전통 절 배우기, 다식 만들기, 차를 따르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생활문화가 달라서 걱정했다. 무릎도 아플 텐데 어찌죠? 라고 말해도 청소년들은 “괜찮습니다.”라며 미소를 지으며 체험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외국 학생들은 우리 협회의 생활다례 시연을 보고 감동이

라고 표현하며 아름답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마치자 외국 청소년들은 수원지부 정경희 지부장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정경희 수원지부장은 수원 시민교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앞으로도 외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일을 많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순 천 지 부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한 여름밤의 티파티

전남 10개교 30가족 120명 대상 차문화 소개



지부장 김영애

지난 7월 19일 금요일 전라남도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교육복지 사업 학교 10개교에서 추천한 30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사업 가족 캠프를 여수 JSC호텔에서 실시했다.

이날 순천지부에서는 테이블 12조를 구성하여 동·서양의 차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라별 스토리가 있는 찻자리를 마련하여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한여름 밤의 티파티를 펼쳤다.

우리나라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김선희 사범은 우리의 전통차인 녹차를 준비하여 우리 차의 우수성과 찻자리에서 임해야 할 예절 교육을 섬세히 지도하였고, 김옥숙 사범은 우리의 전통 발효차인 청태전을 이용하여 베리에이션 티를 준비하여 색다른 7월의 크리스마스 세팅을 표출하여 여름밤의 티파

티를 더욱 고조시켰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차문화를 즐기기 위해 다르질링 마가렛츠 호프티를 준비하여 홍차의 진수를 보여준 조정옥 전문사범, 여기에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인 중국의 기문 홍차를 주제로 이강자 전문사범은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팅을 연출하였고, 참여한 30가족은 찻잔들을 귀히 여기며 귀한 찻자리에 초대됨을 감사히 여겼다. 어디 그뿐인가. 일본 차문화 연출에는 김숙현 사범이 가루차를 준비하여 참여한 모든 가족에게 직접 가루차를 우릴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을 펼쳐 파티장은 더욱 흥미를 더해 갔다.

여기에 미국 차문화를 표출한 정선 사범은 여수 앞 바다를 연상케 하는 시원한 세팅에 아이스티를 준

비하여 티파티의 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중국 차문화 체험에는 양현숙 사범이 보이차를 시연하였고, 이мина 사범은 문향배와 품명배를 준비하여 중국차의 향과 맛을 음미하는 방법 등을 체험하도록 지도하여 흥미를 더했다.

거기에 맛있는 티푸드를 정성껏 만들어 참여한 모든 가족에게 대접한 방수영 사범, 또 다른 한쪽의 테이블에서는 박금단 사범이 동·서양의 식사 예절 교육과 냅킨 접기와 사용법을 지도했다.

이곳에 참여한 가족들은 고품격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으며 다 함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큰소리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행사장은 행복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어서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감사의 편지쓰기와 가족사진 찍기 등으로 행사장은 정말이지 행복이 넘치는 가족 화목활동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행사는 특히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더불어 하는 삶을 공유하고 건강한 소통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었다.

글.전문사범 이강자



아 산 지 부

아산지부 종강식 가져

교육생과 사범, 차를 통해 하나 되다

아산지부는 지난 7월 23일 교육생과 사범들이 모여 종강식을 했다. 오랜만에 회원들 간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고 차향을 느끼며 아름다운 차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종강식 마지막 수업은 무이암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차 마시기, 가루차 설명과 격분해서 차 마

셔보기 등을 통해 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끝으로 이슬 차는 5분 기다려 이슬만큼 입에 머물고 있다가 삼킨 후 입안에 녹차 특유의 진한 차향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차를 통한 힐링과 함께 행복한 종강식을 했다.



지부장 김태임



외암리 야행 행사

차 나누기, 선비다례 체험 진행

아산지부는 외암리민속마을에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조선시대 '밤의 문화 야행 행사'에 참가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아산지부는 '달빛 아래 차를 나누다'와 '선비다례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대청마루에서 다양한 우리차 마시기와 다담 나누기를 했다.

뒷마루에서는 어린이 다례 체험과 시음회, 정자에서는 사전 예약을 받은 후 '선비다례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달빛 아래 고택의 찻자리는 멋스럽고 아름다워 차문화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특히 선비다례 체험 호응도가 높았다. 힘은 들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아산지부는 다양한 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차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



인천지부

교육생과 사범 등 제다체험 다녀오다

제다체험을 통해 차의 소중함 다시 깨달아



지부장 최지원

5월 연휴가 끝나고 인천지부에서는 교육생과 사범들이 제다체험을 하기 위해 보성으로 갔다. 인천에서 보성까지 가는 동안 비가 오고 차가 밀렸지만, 1년 만에 가는 제다체험이라 설렘이 더욱 컸다.

보성으로 가는 길에 작년에 갔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보림제다에 도착했다. 보림제다에 도착하니 오던 비도 그쳐서 차잎을 따는 데 좋았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지만, 초록의 차밭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편안했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탄 찻잎을 큰 솥에 넣고 덥을 때 차향이 은은히 퍼진다.

입에서 저절로 군침이 돈다.

이론 수업으로 들던 낯선 단어인 살청과 유념을 하면서 차를 만드는 과정이 참으로 수고스럽단 생각이 들었다.

차를 마실 때도 차를 만든 사람의 정성을 생각하며 마셔야겠다.

글_전문사범 이윤희



UN 100여 회원국 공공행정 포럼

인천 조동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60여 명 대상

초여름의 햇살은 상쾌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 IFEZ 송도 국제도시에서 정책건축 디지털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UN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참가국 1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규방다례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부는 규방다례 이수자, 전문사범은 다례체험을 준비하면서 손님 맞이 준비를 정성스럽게 차 도구와 다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각국 외국인들은 저희 안내에 따라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찻상이 준비된 곳에 착석하여 우리의

규방다례 생활차 행다에 따라서 집중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습니다. 생활, 선비다례 행다체험에서 방석에 앉는 모습이 서툴지만 차를 정성스럽게 우린 다음 서로 “예”를 갖추면서 다과와 차를 마시면서 연신 “땡큐”,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고 보니 우리 규방다례의 전통문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의 한복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고 하는 모습에 우리 전통문화 다례의 소중함을 느꼈으며 세계 어느 문화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글_전문사범 주순복

전 남 지 부

녹차, 홍차 제다 실습 마쳐

보림제다에서 교육생 30여 명 참여

전남지부는 지난 5월 18일 보성 보림제다에서 교육생과 선배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차 제다 실습을 했다. 이날 제다 실습에서는 녹차를 중점적으로 배웠는데, 6대 다류를 만들 때 채엽부터 다르고 살청 과정에서 줄기가 잘 익혀지지 않기에 차 잎새에서 1cm 이하로 따고, 청차는 줄기 성분에서 유효성분이 많아 창보다는 퍼진 3엽과 줄기를 포함해 따서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술 온도가 280℃가 되면 1킬로그램 정도의 찻잎을 넣고 살청을 했다. 타타닥 소리가 나면서 찻잎을 뒤집는데 처음 해 보는 작업이라 긴장의 연속이었다.

살청이 끝난 찻잎은 유념 작업대로 옮겨져 자연 바람에 냉각시킨 후 유념을 시작했다. 유념할 때 도 힘의 분배를 위해 한 방향으로 조원들이 나누

어 가면서 했다. 이것도 나름의 과학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찻잎에 진이 나오도록 유념한 뒤 술의 온도를 150~100℃ 내려 건조 과정에 들어갔다. 2~3번의 유념과 건조를 반복한 뒤 기계건조를 했다. 싱그러움과 풋풋한 향이 햇차의 맛과 향을 품고 있었다. 다우들과 차 한잔 나누다 보니 찻잎을 키우는 농부의 마음이 새삼 감사함으로 다가왔다. 한편 6월 8일에는 보성 청우제다에서 홍차 제다 실습도 있었다. 녹차와는 또 다른 발효과정에 대해 알았고, 같은 찻잎에서 이처럼 다양한 향기와 맛이 났다는 게 새삼 신기했다. 우중이라는 악조건에서 홍차 제다 실습을 했지만, 10월의 마지막 날 개봉 다회를 할 생각에 설렘이 앞선다.

글.2급 사범교육생 김귀임



지부장 서난경



녹차제다



홍차제다

2024년도 1학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 가져

바람떡 만들기, 티 펀치 만들기 함께 진행

전남지부는 지난 7월 6일 2024년도 1학기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과정 종강식을 교육생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부 교육장에서 가졌다.

이번 종강식은 김경자 이사의 ‘바람떡 만들기’ 특강이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떡을 빻는 회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시지 않았다. 바람떡 만들기 특강은 지난 “전국 차인큰잔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은 기념으로 김경자 이사가 준비한 것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한 체험으로 활용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날 종강식에서 서난경 지부장은 한 학기를 마치면서 “선물처럼 찾아와준 교육생 여러분들과 한 학기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어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으니 내친김에 올해 최우수 지부에 도전해 보자”라며 회

원들을 격려했다. 또 나눔의 행사로 행운권 추첨을 했는데 회원들이 마련한 선물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잘 지냈다.

이날 지부장이 기증한 다기 세트는 김홍길 원장님이 가져가셨는데 “이제는 차 속에 빠져 어디로도 못 가겠다”라며 “열심히 교육받아 많은 사람에게 차를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종강식에는 티 펀치 만들기 수업도 이루어졌는데, 선배들의 후원과 선비님들의 참쌀떡 후원, 각자 만든 바람떡 등 홍차와 함께 포트락 파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박선희 1급전문사범은 “이번 교육생들은 회원들 간에 협력이 활기차 보여 보기 좋다”라고 말하고 “전남지부가 앞으로도 이 에너지를 발판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것 같다”라고 칭찬했다.

글.2급사범교육생(총무) 정경미



전남 전문사범

“강진 야생차 품평대회” 품평위원으로 참여

깔끔한 진행으로 관계자들로부터 호평받다

지난 6월 29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강진 야생차 품평대회”에 전남지부 전문사범들이 품평위원으로 참여해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품평대회에는 녹차와 발효차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비가 내려 우중 속에서도 신속한 상황 대처로 관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전남지부 전문사범들의 도움으로 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참석한 출품자들과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매년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강진 야생차 보존에 힘쓰는 “강진 야생차 품평대회”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해 전통 깊은 품평대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박숙희 1급 전문사범은 “한국차문화협회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품평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 무엇보다도 기뻐다”라고 말하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1급 전문사범으로서 자부심을 품고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품평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서난경 전남지부장은 국내 차연구소 박사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 협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차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품평에서도 전남지부 1급 전문사범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글.1급 전문사범교육생 이영미



쪽빛 하늘 닮은 쪽 염색체험

해남 땅끝 자연 농원에서

지난 7월 31일에 강귀순 회원(2급지도사범교육생)의 재능기부로 전남 해남 현산면 초호리 땅끝 자연 농원에서 감염 색과 쪽 염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 시간에는 낚은 옷들을 가져와 새 옷으로 탈바꿈시키는 멋진 경험을 했고 강귀순 회원이 예쁜 스카프를 하나씩 나누어 주어 각자의 취향에 맞게 염색했다. 이불, 방석 만든다고 감염 색 해서 팔려는 천들과 쪽빛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체험장 주변의 마리골드와 탐스럽게 커가는 감들은 폭염 속에서도 웃음꽃이 가시지 않게 했다.

이번 체험은 종강 후 전남지부 단합 번개팅이었는데 윤영숙, 박현숙 두 선배가 들고 온 차와 이영미 1급 전문사범교육생의 맛난 삼겹살 편육을 비롯해 각자 들고 온 반찬들과 과일 등으로 포트락 파티를 했다. 특히 근무 중에 점심시간 짤 내서 온 한정주,

임성우, 김홍길, 송용필, 윤선웅 선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전남지부의 단합 된 힘을 보여주었다

한편 강귀순 회원의 체험 농원에서는 각종 염색체험, 꽃차만들기, 계절 수확 체험(감자 캐기, 대봉감 따기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숙박도 가능하다. 가족, 혹은 지인들과 체험하러 가시면 지인(협회 회원)찬스도 적용해 준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

글.2급사범교육생(재무) 전미란



전 북 지 부

정읍지회 정읍중학교 다도동아리 교육

모영순 전문사범의 지도로 차 관련 다양한 체험 운영

정읍중학교 다도반 다례교육을 실시하였다. 모영순 전문사범의 지도로 다례교육, 인성예절교육, 생활예절, 다식 만들기,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으로 차와 관련된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학년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차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차향과 차 맛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다. 다식 만들기 수업에서는 남학생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현장 체험학습으로 영국 애프터눈티 체험과 중국 차문화 체험으로 한국 차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우리 차문화와 다양한 세계의 차를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반응이어서 차 봉사에 보람을 느꼈다.



지부장 이 림



호남제일정 '披香亭'에서 연꽃차회를 즐기다

차를 마시며 척서(滌暑)를 즐기다

호남 최고의 정자라는 뜻에서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으로 불리는 전북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289호)'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자의 하나로 조선 중기 목조건축 양식으로 겹처마에 날개를 편 듯한 팔작지붕이다. 예전보다 연못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더없이 사랑스럽다.

7월 6일에 전북지부의 차인들은 연꽃차회를 열어 서로 간의 친목 도모와 차 나눔의 기회를 가졌다.

1992년에 처음 시작된 전주 연꽃차회는 매년 덕진 연못에서 실시했는데, 꽃구경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아 차를 내곤 하였다. 올해는 연못 정화사업 공사로 인하여 피향정에서 진행되었다.

차를 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이렇듯 차도람(모듬바구니)에 차와 다기 등을 담아 풍광 좋은 정자로 나들이 가는 것인데, 잠시 소강상태가 된 장맛비 사이에 앞당겨 찾아온 더위도 잊고 차와 함께 오랜

만의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며 차로 맺은 인연들에 더욱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옛 선비들은 더위를 피해 가는 피서(避暑)가 아닌, 더위를 씻어내는 척서(滌暑)를 즐겼는데, 연꽃 바람 불어오는 정자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차를 마시고, 냇물에 발을 담그고 탁족(濯足)하며 부채질로 더위를 물리쳤다 한다. 피향정에서 연못을 내려다보며 연꽃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맞으며 차를 마시니 신선, 우리도 모두 차선(茶仙)이 된 듯하였다.



충북지부

사범회 6월 모임 단오선 만들다 재능기부로 부채 만들기를 하다

충북지부 사범회는 6월 17일 동양화가인 이병숙 전문사범의 지도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부채 만들기를 했다. 단오가 일주일 전 지났으나 부채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으며 단오선을 만들어 서로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냈다. 울여름은 만든 부채로 신선놀음을 하며 시원하게 보내기를 바라본다.



이월초 병설유치원 다례교육 3회 수업으로 아이들 태도가 달라졌다

지난 5월 27일, 6월 17일, 7월 15일 3일 동안 허운숙 전문사범은 정운경, 임미희 전문사범과 이월초 병설유치원생 9명에게 다례교육을 진행했다. 1회 수업 때 산만했던 아이가 2회 3회 수업을 받고 나니 아이 태도가 달라지고 의젓해졌다고 유치원



선생님도 만족해하였다. 아동들은 차 우리는 과정을 좋아했고 차를 우려 친구에게 따라주고, 꿀떡을 다식으로 차와 함께 먹으며 즐겁게 예절 생활을 익혔다. 참으로 사랑스러웠다.



지부장 박숙희

논산 대건고등학교 다도 수업 2학년, 3학년 중심으로 인성 함양 교육 시행

우리 지부는 2024년 5월 27일, 29일, 30일 논산 대건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인성 함양을 위한 다례교육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사랑이라는 모토로 가톨릭 정신에 근거하여 세워진 학교로 전통문화에 관심을 두고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학교인 만

큼 학생들의 자세가 매우 진지하고 관심이 높아 청주와는 먼 거리이지만 기꺼이 함께하였다.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김영희 청주 상당지회장, 전인숙 사범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제20회 국제차문화교류전 성황리에 마쳐 스리랑카와의 차문화 교류전

우리 지부는 충청북도 후원으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제20회 국제차문화교류전 <스리랑카와의 차문화 교류전>을 가졌다. 스리랑카 7대 산지

를 중심으로 홍차 문화와 제다, 심평을 직접 체험하는 보람 있고 즐거운 여행이었다. 먼 거리라서 걱정이 많았으나 8명으로 구성된 우



리 팀은 8박 10일간의 여행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서로 우의를 다졌고 차문화의 다양성과 폭넓은 차의 세계를 참관하며 우리 차문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매년 진행되는 차문화교류전은 우리 협회 회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행사로 2025년에는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다도와 인문학의 만남' 2학기 문을 열다

우리 지부는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과정인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2024년 2학기 과정의 문을 열었다. 화요일 낮반은 김영희 분회 이사이며 우리 지부 담당지회장님이, 저녁반은 윤해정 전문사범이 맡아 진행한다.

또한 <다도와 인문학의 만남>은 지난해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허인영 전문사범이 진행한다. 지역사회 차문화를 선도하는 교육의 장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9명)

		
2급-제24-1127호 김*란	2급-제24-1128호 천*경	2급-제24-1129호 강*람
		
2급-제24-1130호 유*경	2급-제24-1131호 노*	2급-제24-1132호 명*

		
2급-제24-1133호 박*숙	2급-제24-1134호 유*영	2급-제24-1135호 윤*진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4명)

		
3급-제24-1048호 박*화	3급-제24-1049호 김*훈	3급-제24-1050호 김*아
		
3급-제24-1051호 문*희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9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경남	김O란	인성교육2급-제24-116호
2	대구경북1	천O경	인성교육2급-제24-117호
3	인천	강O람	인성교육2급-제24-118호
4	인천	유O경	인성교육2급-제24-119호
5	전북	노 O	인성교육2급-제24-120호
6	전북	명 O	인성교육2급-제24-121호
7	전북	박O숙	인성교육2급-제24-122호
8	전북	유O영	인성교육2급-제24-123호
9	전북	윤O진	인성교육2급-제24-124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2급 자격취득자(9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경남	김O란	2급-제24-1127호
2	대구경북1	천O경	2급-제24-1128호
3	인천	강O람	2급-제24-1129호
4	인천	유O경	2급-제24-1130호
5	전북	노 O	2급-제24-1131호
6	전북	명 O	2급-제24-1132호
7	전북	박O숙	2급-제24-1133호
8	전북	유O영	2급-제24-1134호
9	전북	윤O진	2급-제24-1135호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자격취득자(4명)

번호	지부	이름	자격번호
1	강원	박O화	3급-제24-1048호
2	강원	김O훈	3급-제24-1049호
3	전북	김O아	3급-제24-1050호
4	전북	문O희	3급-제24-1051호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4년 5월~ 8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9,300,000원)
기타 · 정건영 (300,000원)
서울제1지부 · 이기분 (50,000원)

특별회비(임원)

부회장 · 이혜자 (1,500,000원)	지부장 · 이정희 (1,000,000원)	지부장 · 조화미 (500,000원)
지부장 · 정경희 (500,000원)	지부장 · 김태임 (5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성의순
경남지부 · 안선희,박영미,황동순,박은화,정태수,조경자,이서영,이미숙,안순덕,정연상,이숙련,김경희,이용숙,안영선,주영희
광주지부 · 민선미
교토지부 · 사범12명
대구경북제1지부 · 심순옥,임순희,이남정,임문은,구영희,이은숙,박양자,김명수,장명희,구명희,김태경,배문주,채경숙,허윤경,이명자,김천수,배성호,
조현숙,도윤옥,김영순,이다혜,월제스님,위숙희,강길자,배태선,양영희,안경숙,김외숙,정미경,남혜란,오봉숙,서규,이귀자,배일분,
엄위특,김영임,김윤철,박선민,권영희
동수원지부 · 정옥연,강영자,송은정,김정인,조병주,조덕희,김미영,정숙현,이강복,김지원
부산지부 · 김행숙,이정옥,김정숙,심현숙,이은숙,윤명희,김미경,최경화,김선희
서울제1지부 · 신소현,이봉련,진인순,이찬훈,박남숙,이은영,박성숙,김미경,문현숙,김옥희,이명구,황경서,이혜민
인천지부 · 김은숙,박명모,남미선,임승연,김남순,위타점,원종혜
전남지부 · 이영미,선수원
전북지부 · 소유미
충북지부 · 이재연,김희민,강유주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승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thinkmy@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4년 5월-8월 우승료 납부자 명단

5월 통장 입금

대구경북제1 · 이국주 / 서울제1 · 김은정 / 충북 · 김희민, 이재연

6월 통장 입금

경남 · 안선희, 황동순, 박영미, 박은화, 정태수 / 광주 · 민선미 / 대구경북제1 · 구
영희, 허윤경, 채경숙, 이은숙, 김태경, 임순희, 이명자, 구명희, 이다혜, 위숙희, 도
윤옥, 장명희, 배문주(동순), 심순옥, 김천수, 김명수, 박정호(월제스님), 강길자, 배
태선, 배일분, 엄위특, 양영희, 남혜란, 서 규, 이귀자, 정미경, 안경숙, 김외숙, 오
봉숙, 김영임, 이남정, 조현숙, 임문은, 박양자, 배성호, 김윤철, 김영순, 박선민, 권
영희 / 아산 · 금경희, 신지안 / 인천 · 위타점, 김은숙, 박명모, 남미선, 김남순, 임
승연, 원종혜 / 전남 · 이영미 / 전북 · 소유미

7월 통장 입금

강원 · 성의순 / 경남 · 김경희, 이숙련, 황미경, 하 식, 이서영, 안영선, 주영희, 정연
상, 조경자, 안순덕, 이용숙, 이미숙, 강정자, 조희옥 / 동수원 · 김미영, 정숙현, 정
옥련, 조병주, 강영자, 송은정, 김정인, 조덕희, 김지원 / 부산 · 김미경, 김행숙, 이
정옥, 이은숙, 윤명희, 심현숙, 김선희, 김정숙, 최경화 / 기타 · 남택선

8월 통장 입금

전남 · 선수원 / 충북 · 강유주 / 교토 · 사범12명

증문자(憎蚊子)

금명 보정 선사의 『다송시고』에는 동물이나 벌레 등에 대해 읊은 시도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모기(蚊)에 관한 시가 이채롭다. 아마도 모기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낸 적이 많았던 모양이다.

<증문자(憎蚊子)>

삼베 밭에 사는 모기를
술가지 베어다가 연기 피워 막으리.
처마 끝에 거미줄로 망을 치고
문 앞에는 주렴을 드리웠건만
털끝마다 맺힌 피,
벼리 주둥이로 배 채우고
줄개들은 늘어져서 한잔 차를 마시네.
격문 돌려 모깃불 진을 쳐서
오늘 밤엔 반드시 물리치고 말리라.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다. 한여름 모기와와의 한판 전쟁이다. 모기가 얼마나 미웠으면 제목도 「증문자(憎蚊子)」이겠는가? 모기를 막아보겠다고 술가지로 연기 피우고, 문에는 주렴을 드리우고, 이것도 모자라 거미의 힘을 빌려 처마 끝에 거미줄도 쳐 놓았건만 속수무책이다. 모기들은 벌써 피로 배를 채우고 한잔의 차로 벌써 입가심까지 한다. 속수무책인 다송자 이제는 격문을 돌려 이웃의 힘까지 모아 오늘 밤에는 반드시 물리치고자 다짐한다.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교 교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산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입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溟寶鼎의 禪 사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제25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 경연대회

다례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참가대상 | 전국의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접수기간 | 2024년 9월 10일(화)~9월 20일(금)

지역예선 | 2024년 9월 23일(월)~9월 30일(월)

**본선및동영상
접수마감** | 2024년 10월 4일(금)

경연일시 | 2024년 10월 19일(토) 13:00

경연장소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부대행사 | 차 시음회, 제다체험, 녹차솜사탕, 떡메치기
전통 발물레 시연 및 화병 나눔 등 전통문화체험
기념 포토부스 운영, 다례 시연 및 공연, 행운권 추첨
*부대행사는 행사장에 오시면 모두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 (사)규방다례보존회 TEL. 032-468-3595

접수 | koreatae1991@naver.com



차예절 경연대회

|주최|    규방다례보존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주관|    규방다례보존회  (사)한국차문화협회

 가천문화재단
Gachon Cultural Foundation

전통수제차의 명가 햇차원이 만듭니다.



수상내역

2001 경상남도 우수벤처 농업상 수상

2003 "햇차원"으로 사명변경

2005 ISO 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2007 유기농 인증획득

벤처기업 인증서 획득

2008 진주 바이오21센터 내 연구실 개소



다맥전수자 이경숙님

200년을 이어온 제다기술로 장인의 손에서
세상에서 둘도없는 명품차를 만듭니다.

햇차원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202 전화: 055-882-0000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 국 제 다

제품상담: 062)222-2902